

## 제6실 서적: 고대 인도와 일본의 옛 경전

### N-8-1 범본심경 및 존승다라니

다라수 잎을 건조시킨 후 양 끝을 자르고 가로로 경계선을 그어 ‘반야심경’과 ‘불정존승다라니’를 범자로 기록한 패엽경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종이가 정착되기 이전에 다라수 잎을 사용한 패엽 사본이 성행했습니다. 이 패엽경은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시됩니다.

### N-8부속 역경기

에도 유시마에 레이운지 절을 창설한 진언종 승려 조겐(1639~1702)은 실담(범자 및 범어에 관한 학문)학자로서도 알려져 있으며, 범자에 뛰어났습니다. 이 역경기는 1694년에 조겐이 호류지 절에 전래된 범자 패엽경 2엽, ‘반야심경’과 ‘불정존승다라니’를 필사하고 주점(훈독을 위해 붉은 색으로 표시한 기호)과 구의(글의 의의)를 기록한 후,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

### N-11 현우경의 일부(오조무)

이 사경은 13권본 『현우경』 제5권의 사미수계자살품 제23에 해당하는 단간입니다. 필자는 쇼무(聖武)천황으로 전해지지만 자필은 아닙니다. 사경 중에서도 특히 웅대하면서 힘찬 서풍으로 ‘오조무(大聖武)’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 N-14 불명경

『불명경』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받아들이고 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입니다. 이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개의 불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제6실 옆직: 비단 양산과 고대의 천개

이번에는 고대의 천개를 전시합니다. 천개란 고대 인도의 양산에서 유래한 장엄구(불당을 장식하는 도구)입니다. 양산은 고귀한 인물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고귀한 인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불상의 머리 위에 천개를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호류지와 쇼소인에 전해진 <직물 천개 조각>을 포함한 아스카~나라시대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 N-319-26 직물 천개 조각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천개의 주위에 드리운 장식용 막이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주름을 접은 막 위에는 이등변삼각형 모양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옆직물에 그려진 크기가 큰 무늬는 중국 당시대의 대륙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 I-336-30·31 적색 바탕 포도덩굴무늬 능직비단 천개 드리개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아스카시대부터 나라시대 초기 사이에 제작된 천개 드리개 장식은 예각 이등변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 I-337-51 적갈색 바탕 안개 격자 새무늬 납염 평직비단 천개 드리개

나라시대 8세기 (쇼소인 전래)

여기서부터는 나라 쇼소인(정창원)에 전해져온 천개 드리개의 조각들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U자 형태이며 주위에는 비단 테두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밀랍을 녹여서 틀을 만들고 스탬프처럼 누른 뒤에 염색하는 기법으로 새가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 I-337-166·167 황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천개 드리개

나라시대 8세기 (쇼소인 전래)

각기 다른 당화무늬가 직조된 비단으로 만들어진 천개 드리개 조각입니다. 연꽃 등을 기본형으로 하여 원 모양으로 만든 무늬를 당화라고 부르며, 중국 당시대에 유행한 무늬입니다.

### I-337-231 자색 바탕 꽃과 새와 연속 구슬·칠보무늬 비단 천개 드리개

나라시대 8세기 (쇼소인 전래)

원 모양을 엇갈리게 조합한 형태 속에 꽃과 새 무늬를 나타냈습니다. 새는 꽃 주위를 에워싸듯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무늬는 헤이안시대 이후에 유행하게 되는데 그보다 앞선 사례에 해당합니다.

## I-337-232 백갈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천개 드리개

나라시대 8세기 (쇼소인 전래)

두 종류의 당화무늬를 번갈아 배치한 비단을 사용한 천개 드리개 조각입니다. 꽃잎 부분을 자세히 보면 짙은 녹색과 옅은 녹색으로 농담을 표현하는 등의 섬세한 기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31 비단 양산

나라시대 8세기

쇼토쿠 태자의 양산이라고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선명한 붉은색으로 염색된 3장의 비단을 기워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